주산지 육성방안 시급하다

주산단지순례 ④ 당귀—평창

가공공장·전담연구 기관도 없어

사물탕이나 십전대보탕의 보약재로 이용되는 당귀는 자궁기능 조절, 진정, 진통, 이뇨, 비타민E 결핍증 치료작용, 항균작용 사하작용 등의 약리작용이 있어서 한방치료약으로 쓰인다. 어린순은 나물로 식용하고 생뿌리로 술을 담가 먹기도 한다.

고냉지인 강원평창, 경북봉화 삼척 정선 인제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평창에서 재배되는 당귀는 그 약효와 품질면에서 최상품으로 꼽힌다.

95년 평창군내 당귀 재배면적은 약 1백50만평. 지난해는 1백15만평에서 80만근의 당귀가 생산됐다.

산간지역, 경사진 비탈밭이라 김매기, 거름주기, 수확할 때도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대신 사질양토에 배수가 잘되고 산에서 흘러내린 자연수로 여름에도 가뭄이 없는 기후적 특성은 고품질 약초 생육의 적지라 할 만하다.

평창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수는 대략 1천6백여 가구이며 8백m 고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이들은 대개가 약초농사와 함께 고냉지 채소를 번갈아 재배한다.

3천평 당귀농사를 짓는다는 함만길씨(54·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역시 『매년 당귀와 감자를 번갈아 재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당귀는 이어짓기를 하게되면 품질과 수확량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

『당귀는 잎사귀가 위로 쭉쭉 뻗은것 보다는 옆으로 넓게 퍼져 수그린 것이 잘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길호기씨(평창군 진부면 하진부 7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고냉지역이라 진딧물이 와서 잎이 오글오글 할때만 약을 치고 거의 다른 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당귀는 직파하여 당년에 수확하면 육질은 연하나 약효성분 함량이 낮을뿐 아니라 수량성도 떨어진다』는 함영완씨(생약협회 평창군 사무소장). 그래서 1년간 노지재배후 이듬해 봄에 본밭에 옮겨 심는 식으로 육묘이식재배를 하고 있는 평창의 당귀는 직파재배로 당년에 수확하는 타 지역에 비해 추대율도 적을뿐 아니라 품질도 우수하다고 한다.

재배된 당귀는 10월 초순경부터 수확하게 되는데 비탈밭이라 기계를 사용못하고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싼 인건비도 농가들에겐 부담이지만 그보다 노동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손 구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게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품앗이 형식으로 일손을 해결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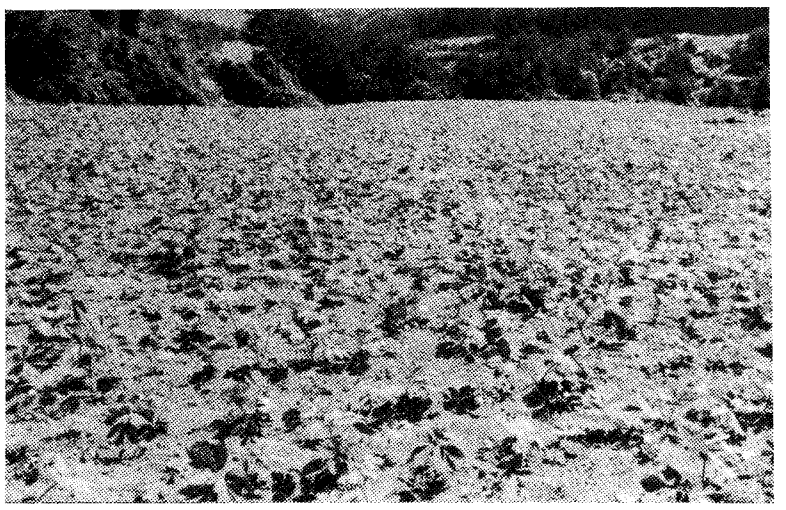
30년째 당귀농사로 자식들 대학교까지 건내고 뒷바라지 해왔다는 길부기씨(59세·평창군 진부면 송정리)는 『수입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당귀는 다른 밭작물에 비해 제법 짭잘한 수확을 볼 수 있었는데 92년 후반기부터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한 수입당귀 등살에 제값을 못받기 일쑤고 수입자유화로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건 농민들이라며 한숨이다. 그나마 내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니 다행. 남의 땅을 빌려 한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경우 평당 1천원꼴인 해도지(1년 토지대여비)를 선불로 지불하고 비싼 인건비에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을 정도라고.

『근당 5천원 이상은 받아야 우리도 먹고 살게 아니냐』고 말하는 김부기씨는 작년 가을에 6천5백원 하던 당귀시세가 올해는 토당귀 4천5백원 일당귀 3천5백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털어놓는다.

평창에서 당귀재배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다. 오대산 등지에서 자생해 오던 약초의 종자를 채취해 이를 밭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40년 훨씬 이전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오랜 약초고장의 연륜에 비해 당귀재배기술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평창군 자체적으로 당귀주산단지로의 육성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저 20~30년 전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당귀 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생산해 내는 당귀 주산단지이면서 이렇다 할 약초가공공장도 전담연구기관도 없는 실정.

수입개방화에 맞서 우리 농촌을 지키고 당귀를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당귀의 이용가치와 용도를 체계적으로 분석·실험할 전담 연구기관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재배농민들과 함께한 함영완 사무소장(左로부터 첫 번째).

약초 연구기관을 찾아서

④ 연천 율무시험장

율무국수·식혜 개발보급 계획
황기 더덕 재배기술 연구도

지난 94년 설립된 율무시험장(장장·이효승)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실 3백18평, 창고 1백평, 세대단축온실 56평, 관리사 1백평, 시험포장 총 1만2천평 규모의 율무시험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등 모두 7명이 율무의 고품질 다수안전생산을 위한 품종개량, 생력재배기술개선, 가공이용기술 개발 외에도 더덕 황기 등의 약용작물 재배기술 향상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율무의 우수품종육성을 위해 육종재배연구실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국내 지방 재래종을 수집 6백여 계통을 유전자원으로 활용 특성검정을 통해 선발된 유망계통은 육종 모재로 활용하는 한편 인공교배를 통한 계통육성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내재해성 우수품종 특성을 위해 방사선처리와 특수시약처리(이엔에스)에 의한 돌연변이 육성시험도 병행수행할 예정이며 육성품종에 대한 품질검정으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첨단장비를 활용 고품질 양질미 품종육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잎마름병 발생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져 농가재배시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잎마름병의 발생생태를 구명하고 효율적인 방제적기 및 방제법을 연구중에 있고, 생육기중 조명나방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발생최성기, 구명방제적기 및 우수방제약제를 선발코져 시험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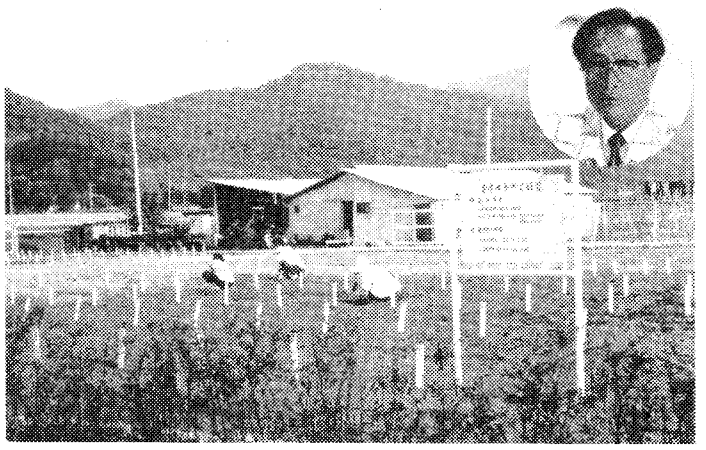
『율무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통경로를 거치는데 생산물이 완제품으로 가공되기까지는 수차의 가공단계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생산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이효승장장은 『따라서 율무유통실태를 면밀히 분석, 생산자의 가격보장과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을 기고코자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시험장은 전국에 산재하는 율무생산업체의 생산품의 종류 및 현황을 조사 생산품의 내용성분을 분석하고 우리 전통에 맞는 향토식품으로 율무국수, 율무식혜 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연구활성화를 위해서 율대 생약연구소와 율무 생리활성 물질의 산업화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중이다.

시험장은 율무 외에도 경기북부지역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꼽히는 더덕, 황기 등에 대한 재배기술개발 연구도 내년부터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더덕의 발아율 저조로 인한 수량감수 문제를 해소코자 더덕 생력파종에 따른 입모율 향상기술 시험실시중.

한편 황기의 이용부분이 뿌리인 점을 볼때 지상부의 화아분화에 의한 개화는 뿌리부분의 양분공급에 영향을 받아 뿌리의 비대생육에 지장을 주는 원인이 되므로 화아분화 억제효과를 위해 엔티싸 등 생장조절제 처리에 의한 시험을 95년 착수 진행중이다.

『앞으로도 수입개방화에 대응 다수안전생산을 위한 우량품종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단일, 한해·병해충 방제기술 및 유효적절한 재배기술의 농가보급을 위해 꾸준히 연구 노력할 계획』이라는 이장장은 『그러나 정원 14명중 현재 7명의 연구인력으로는 연구과제수행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 연천 율무시험장(원내는 이효승장장).